

# '원숭이'를 통해 본 인간의 감춰진 속성

프랑스 드 발 지음 《정치하는 원숭이》

## 박시룡

한국고원대 교수·생물교육학과

동물행동학자는 동물과 인간을 비교 연구하여 '인간 행동의 동물적인 뿌리'라고 불릴 만한 것을 느껴보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늘 동물의 행동연구를 통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간이 원시 인류로부터 진화해 오면서 취한 어떤 행동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때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좀더 가능해질 수 있다.

대략 200만년 동안 인류의 원시기간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인류는 복잡한 갈등상황을 거쳐 심리학적으로 원시인만의 독특한 특징을 지녔을 것이다. 석기시대의 인류를 60,000세대로 보았을 때 이들은 오늘날의 인류에게 무의식적으로 전해 준 정신적 내지 심리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그 시대의 사교들이 현대의 인류에게 유전되어 왔을까?

### 침팬지에서 보이는 인간의 숨겨진 본성

오늘날의 인류는 석기시대 행동의 고고학적 박물관으로 볼 수 있다. 이 행동으로부터 원시 인간의 발달과정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 석기시대의 인간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행동하였는가를 증명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것을 증명할 만한 화석들은 이 행동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오늘날 인류가 어떤 확실성을 가지고 인류 조상들의 행동에 대해 무엇인가 가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류학, 고고학, 인종학, 지질학, 심리학 그리고 행동학 등과 같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계로써 설명이 가능하리라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대 인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원시 인류와 가장 가까운 동물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의 행동이 오늘날의 인간의 행동과 유사하다는 점에 있어서 늘 흥미를 가져왔다. 동물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대부분이 다른 동물에 비해 원숭이의 행동에 특별한 눈길을 주는 데서 알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침팬지의 행동에서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본성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느낌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침팬지의 사회구조를 배우게 되면 더욱더 그런 느낌은 커진다.

정치의 이론을 빌리지 않고 정치를 한 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다스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는 순위질서에 의해 다스려진다. 침팬지의 정치는 순위질서에 의해 다스려지는

### 우리는 침팬지의 행동이

### 인간의 행동과 유사하다는 점에

### 늘 흥미를 가져왔다.

### 침팬지 사회의 권력쟁탈, 서열, 연합,

### 분할지배 전략, 복종, 거래 등은

### 오늘날 인간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 있는 현상들이다. 어쩌면 우리는

### 침팬지의 행동에서 내면에 숨겨진

###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듯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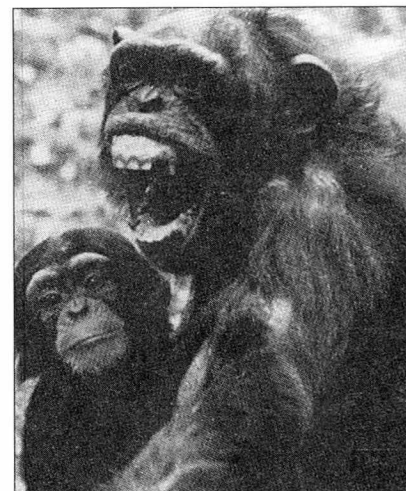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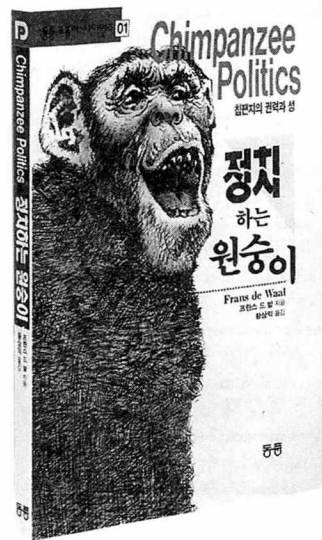
### 느낌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인류의 정치극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아주 상위 자리에는 한두 마리의 힘센 수컷이 있게 마련이다. 그 다음에는 성숙된 암컷들이, 마지막에는 어린 침팬지 순의 서열이다. 이 순위질서에서 위치는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른데 가까이 친구나 친척이 있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 사회에서는 그의 자리가 새롭게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는 늘 다툼이 있게 된다. 실제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털을 바짝 세우고 위협의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과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에게 무섭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을 소모하지 않는, 즉 제스처에 불과하다. 가끔 가장 서열이 높은 침팬지는 시무룩하게 팔을 굽히고 어깨를 위로 하여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나무 잎사귀로 시끄럽게 소리만 내고 있다. 다른 침팬지들은 이것에 매료되어 쳐다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침팬지도 자리가 강등되어 그 위엄이 사그라지게 된다.

### 강력한 순위질서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

암컷들과 새끼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는 아주 시끄럽기는 하나 상처 없이 질서는 지켜지고 있다. 모든 제스처와 외침은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동원되고 다. 한 수컷이 자기 손을 어떤 껍데기는 암컷을 향해 펼친다면 이것은 침팬지 사회에서 겸손과 아첨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순위질서에서 특별히 발달된 행동패턴들 가운데 하나다. 이런 순위질서가 계속 발전할 수 있기 위해 개체들은 어쨌든 공격적이어야 하며 순위를 위해 늘 애써야 한다. 그러나 패배하게 되



놀거나 불인하거나 불쾌한 경우, 침팬지들은 이빨을 드러낸다.

면 낮은 순위를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 그 다음 복종해야만 된다. 이런 사회적 순위질서가 인류의 집단에서도 공격을 누그러뜨리도록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발달해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강력한 순위질서에 의해 통제된 집단내에서 맹수가 나타나면 이 집단의 모든 침팬지들은 적 앞에 모여들어 주먹, 막대기 혹은 돌로 흠씬 때린다. '몽치면 힘이 강해진다'는 논리를 일찍이 인류 원시 조상의 친척인 침팬지들도 터득해 왔다.

침팬지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의 위치를 지켜야만 했다. 각 세대들의 강함, 교활함, 그리고 난폭함을 통해서만 이런 투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친척들 내에서도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능력을 통해 가능한 한 높은 서열을 획득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서열이 높은 자만이 가장 유리한 생존 조건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은 빙하시대에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난폭함, 교활함, 위협의 행동들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행동들은 후세까지 내려오는 동안 현대 인간들에게 각인되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가혹한 시련이 없었던들 예술, 종교, 윤리 그리고 인간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우리들은 조상들이 매머드를 사냥했을 때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다. 다만 인류의 오랜 진화과정 중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추측과 의심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침팬지에 의해 벌어지는 정치 드라마는 오늘날 인간의 상황을 좀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인간사회와 유사한 구조

정치에는 순위질서 이외에도 위엄행동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침팬지의 복종과 아첨행동은 정치가들이 권력자 앞에서 미소를 그치지 않는 행위나 머리를 깊이 숙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권력자는 군대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며 적들에게 위협을 표시한다. 그렇게 보여야만 위엄이 있게 되고 위엄은 힘의 상징이다. 힘이 있는 자만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위엄은 집단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지자들을 규합하여 정권을 쟁탈하는 침팬지들의 사회는 오늘날 인간사회의 구조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말하자면 침팬지 사회의 권력쟁탈, 서열, 동맹, 분할지배 전략, 연합, 조정, 특권, 복종, 거래 등은 오늘날 인간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이런 각각의 현상들에 대한 집착이 집단을 형성시켰으며 그 집단은 부족으로, 마침내는 국가로 발전했다. 인간의 일면은 양순하고 정직하며 또 인도주의적이다. 그러므로 항상 평화와 평등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의 또 다른 일면은 교활함, 난폭, 악의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착취와 억압의 선봉자가 되기도 한다. 인간의 원시 조상과 근친인 동물을 통해서 우리는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 깊숙이 감추어진 속성을 바라볼 수 있다.

동풍/A5신/286면/6500원